지역 소식통

정읍시, 2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기관 선정

정읍시가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청장 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최종적으로 정읍시를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이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다.

평가 분야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임도시설 실적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이다.

시는 6개 지표에 대한 평가와 사업실적 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적시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학수 시장은 "산림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자연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사무실 7개소 전자입찰

부안군은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부안읍 동중2길 15, 구 부안해양경찰서)를 새롭게 정비해 3층 사무실 7개소를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8월 5일 오후 5시까지 10일간 전자입찰을 통해 사회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찰자격은 전자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계속해 부안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행정안전부 지정정보처리 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 통해 진행되며 낙찰결정은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기준 최고가 입찰한 단체로 결정된다.

입주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 5년이며 사용허가 이후 3년간 사용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료 체납이 없는 경우 1회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촘촘한 안전망 구축 재난 예방 총력

고창군, 안전문화 대상·지역안전지수 개선 표창
안전한국훈련 전국 우수기관 선정 등 수상 잇따라

고창군이 안전고창 실현을 위한 촘촘하고 튼튼한 안전망 구축으로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군은 지난해 12월 '2023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빛원전 비상대비 주민보호 훈련, 기상재난 상황 적극 대응, 지진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사회·자연재난 선제적 대응활동과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 교육,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년 지역안전지수 5개분야 지표(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지표를 개선하는 평가에서도 도지사 표창도 수여받았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고창천이 범람하는 상황을 가정한 풍수해 대비에 초점을 맞춘 고창군 안전한국 훈련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이 훈련을 통해 6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마을주민 200여명이 재난 발생 초기대응부터 복구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훈련하여 지구 온난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향상 시켰다.

재난분야의 최상위 평가로 재난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분야를 평가하는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시군에 선정됐다.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형광희 고창군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안전고창 실현을 위한 촘촘하고 튼튼한 안전망 구축으로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4 변산비치파티 8월 한 달간 개최

비치댄스·비치시네마·노을포차·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부안군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낭만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2024 변산비치파티를 오는 8월 2일부터 24일까지 한 달여간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춤추는 변산, 눈부신 해변'을 주제로 비치댄스 경연대회, 해변 워터 플레이존, 아이키(소속그룹명 훅)을 포함한 댄스팀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3일간 매일 불꽃놀이와 EDM 파티를 진행해 한여름 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또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24 부안무빙 변산 비치 시네마'는 붉은 노을이 지는 변산해수욕장 해변 캠핑 의자에 앉아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주제로 다양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감독·배우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노을쉼터에서 열리는 '부안네컷' 프로그램은 영화 속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포스코스틸리온 신기술을 적용한 전시회가 준비돼 질감과 입체감이 살아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오는 8월 17일 오후 3시에는 변산해수욕장 워케이션 센터에서 배우 박정민 등이 참여하는 필름토크가 예정돼 있어 단순히 영화만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영화 속 깊은 이야기를 드려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을과 함께하는 버스킹 행사는 오는 28일과 8월 10·11·18·24일 진행되며 버스킹, 타악 퍼포먼스 공연, 보물찾기, 모래찜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변산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오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변산 한여름 밤 포차 얼맥 축제를 병행해 매일 레트로 음악과 가족·연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시원한 얼음맥주를 즐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4 변산비치파티를 8월 한 달여 동안 개최해 언제든 변산해수욕장을 방문하면 가족·연인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3단계 상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3개 분야 109개 사업에 140명 모집, 사업 운영 지원 등 투입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읍시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2024년 3단계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 3단계 사업은 오는 9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 중 60세 이하는 주 30시간, 61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급은 9860원이며,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모집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기준(2024.9.9.) 18세 이상(2006.9.9.) 69세 이하(1954.9.10.) 시민으로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참여 횟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위기 극복 및 생계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운영 방향 설정을 마련을 위해 25일 김철태 고창부군수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

고창군, 김철태 고창부군수 주재 전문가 간담회 열어

고창군이 '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운영 방향 설정을 마련을 위해 25일 김철태 고창부군수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갯벌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해설사, 인문학자, 프로그램 개발팀, 지역센터 사용자 그룹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갯벌 관련 전문가 그룹의 발표를 통해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의 건립과 운영 방안 제언을 들었다.

또 와덴해 갯벌 세계유산센터 운영사례 및 업무 협력 방안 모색 등의 발표를 통해 센터 건립과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갯벌에 국한되지 않고 고창의 인문·사회환경을 반영하고, 유산 자원과 어울리는 공간 마련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아이들과 사용자 중심의 건축설계, 지역민의 쉼터 조성, 교육과 생태관광 내실화를 통한 국제적인 유산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는 "고창갯벌만의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유산관리 거점을 마련하는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관련 군민 토론회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오는 8월 1일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군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부안군의회,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 김용국 한빛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대외협력실장, 부안군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10년 수명연장)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영향평가 초안 검토 △원전 인근 주민이 바라보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지난 6월 12일 부안에서 4.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은 부안군 미래의 안전에 직결된만큼 부안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토론회를 계획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보건소, 디지털 골밀도검사기 도입 본격 운영

고창군보건소가 최신 디지털 골밀도 검사기 도입해 군민들의 뼈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25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최신식 디지털 방사선 골밀도 검사기가 도입돼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도입된 장비는 고시양, 고정밀, 신뢰도 높은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한다.

특히 체형에 따른 검사 제약이 없고, 골다공증 예방에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로 알려져 있다.

군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진료 후 검사가 가능하다. 대상은 19세 이상 골 질환 관련 유소견자로서 검사비는 고창군보건소 진료비 조례에 따라 8000원이다. 65세 이상 고창군민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후 약물 처방이 필요한 군민에게는 처방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